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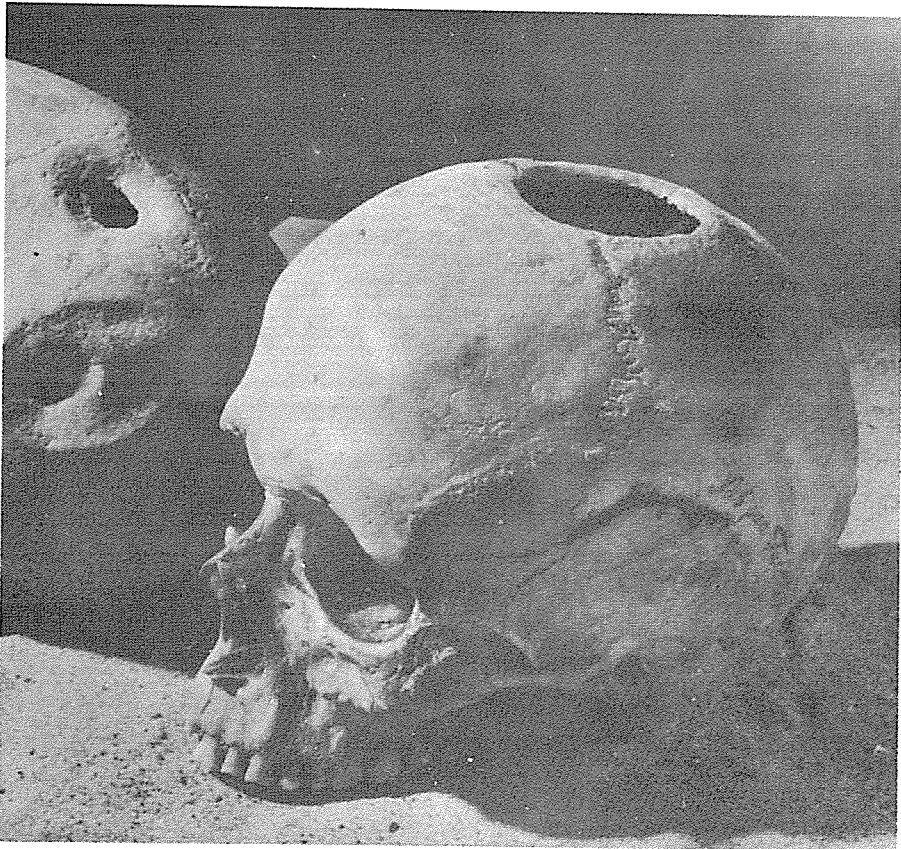
美術作品을 통해본 齒科醫學

新石器時代의 穿顱術을 行한 頭蓋, 구멍이 뚫려진 골가상자리에 治癒의 흔적이 보이며 手術後 回復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手術目的이 醫學的이였는지 魔術的이였는 지는 모른다.

古代 페루에서는 이미 그때부터 자루 달린 동근 톱과 칼을 사용하여 腦수술을 시행했다. 야생식물에서 구한 마취제, 솜, 붕대등도 이용했다.

코펜하겐 국립 박물관



세창치과기공소

752-5970, 778-8687

서울용산구 도동 1가 19-18 (금정빌딩 302)

대표 권혁문